



미 증시, 물가 안도감 속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4일(화) 미국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시장 예상을 하회한 소비자물가 결과와 반도체 업종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 (다우 0.02%, S&P500 %, 나스닥 +0.90%).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통화긴축 우려를 완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4% 하락해 시장 예상치(-0.1%)를 하회했으며, 특히 가솔린 가격이 9.7% 급락하는 등 에너지 부문이 5.7% 하락하며 물가 둔화를 주도. 근원 CPI 역시 전월 대비 보합권에 머물며 예상치(+0.2%)를 밑돌았고, 전년 대비 상승률도 전월보다 둔화.

앞서 월러 연준 이사가 근원물가가 높게 나올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이번 물가 결과는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으며, CME FedWatch 기준 전일 42%까지 상승했던 7월 금리 인상 확률도 16%로 하락. 금리 부담 완화와 위험선호 회복이 맞물리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증시 상승세 확대.

다만 일부 IT 품목에서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공급망 비용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점은 경계 요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격은 전월 대비 2.2% 상승했고, 반도체 가격의 영향을 받는 기타 비디오 장비 가격도 7.7% 급등. 최근 DRAM 등 반도체 가격 상승이 완제품과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한 달의 지표만으로 구조적인 물가 안정 국면을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당장의 물가 안도감은 통화긴축 우려를 완화하며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

물가와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미국 반도체주는 SK하이닉스 ADR(+27.29%)를 중심으로 강세. 바클레이즈가 SK하이닉스 ADR에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주가 330달러를 제시한 데다 레버리지 ETF 상장으로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한 영향.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2.54%) 강세를 견인.

실적 시즌 포문을 연 미국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과 트레이딩 수익 호조를 기록했으나, 향후 수익성 전망에 따라 주가 흐름은 차별화. JP모건(+2.50%)과 BOA(+1.88%)는 주식 트레이딩 수익 증가와 자사주 매입, 순이자마진 전망 상향에 힘입어 상승했으며, 골드만삭스(+9.00%)와 모건스탠리(+2.98%)도 트레이딩 부문 호조로 강세. 반면 씨티그룹(-5.29%)과 웰스파고(-2.71%)는 자기자본이익률 전망 유지와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식 거래 매출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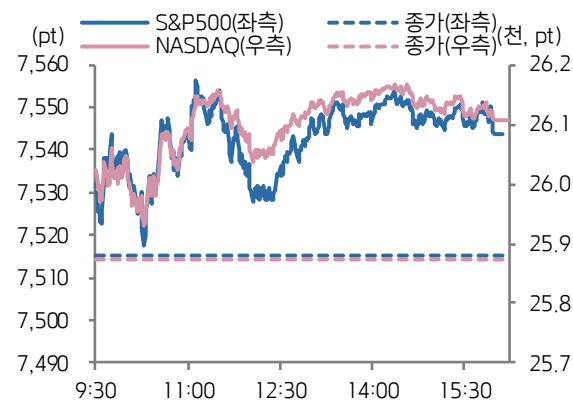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최근 급락에 따른 가격 매력에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 특히 개인의 패닉성 판매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주도.

금일 코스피는 코스피200 야간선물(+5.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2.5%) 상승을 반영해 강세 출발할 전망.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락세가 이어졌던 만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기술적 되돌림과 저가매수세 유입이 지수 반등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화물에 대한 20% 비용 부과 방침을 철회한 데다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 여기에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둔화되며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후퇴한 만큼, 최근 증시 조정을 유발했던 매크로 부담도 단기적으로 완화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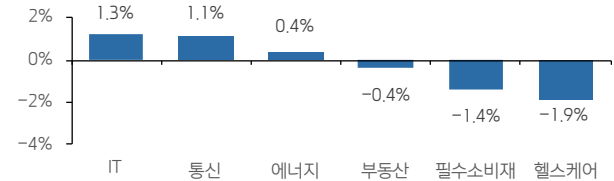
다만 이번 반등이 반도체주의 추세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낙폭 과대 인식을 넘어 AI 투자와 메모리 수요에 대한 실적 확인이 필요. 향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AI 설비투자 계획이 반도체 수요의 지속성을 판단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며, 이번주 예정된 ASML과 TSMC의 실적 및 수주·설비투자 가이드를 통해 업황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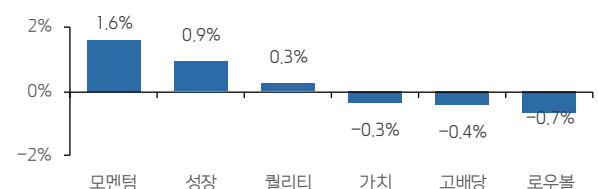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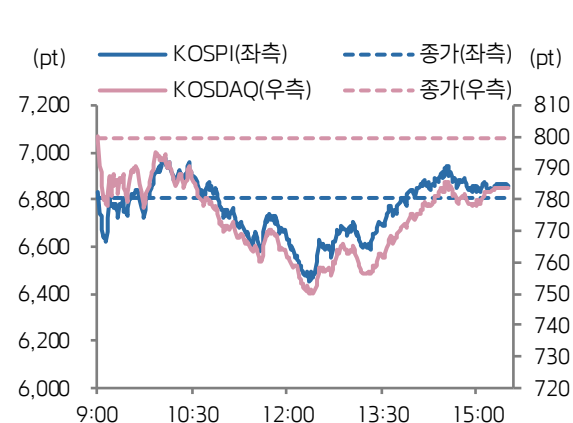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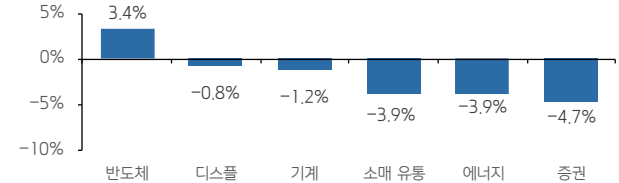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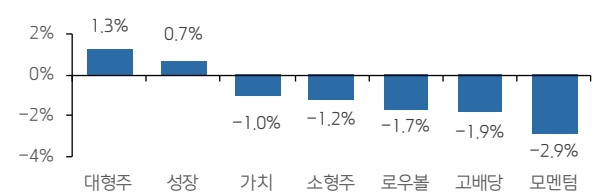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14.86	-0.77%	+15.82%	GM	76.87	+0.2%	-5.47%
마이크로소프트	384.93	-1.55%	-20.41%	일라이릴리	1,152.54	-2.48%	+7.24%
알파벳	359.51	+1.99%	+14.86%	월마트	113.70	-0.94%	+2.06%
메타	661.04	+0.66%	+0.14%	JP모건	342.89	+2.5%	+6.41%
아마존	247.49	+0.07%	+7.22%	엑손모빌	145.09	+0.4%	+20.57%
테슬라	396.18	+0.36%	-11.91%	세브론	181.76	-0.24%	+19.26%
엔비디아	211.80	+4.06%	+13.57%	제너럴일렉트릭	113.70	-0.9%	+2.1%
브로드컴	389.11	+1.32%	+12.43%	캐터필러	933.34	+0.2%	+62.92%
AMD	548.13	+2.57%	+155.94%	보잉	217.11	+0.74%	+0%
마이크론	983.12	+4.92%	+244.46%	넥스트에라	89.54	+1.3%	+11.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856.83	+0.73%	+62.71%	USD/KRW	1,489.85	-0.41%	+3.5%
코스피200	1,092.23	+1.25%	+80.24%	달러 지수	100.92	-0.31%	+2.64%
코스닥	783.98	-1.92%	-15.29%	EUR/USD	1.14	+0.34%	-2.78%
코스닥150	1,354.36	-2.2%	-12.47%	USD/CNH	6.77	-0.16%	-2.89%
S&P500	7,543.59	+0.38%	+10.2%	USD/JPY	162.25	-0.11%	+3.54%
NASDAQ	26,107.01	+0.9%	+12.33%	채권시장			
다우	52,508.27	+0.02%	+9.25%	국고채 3년	3.890	+8bp	+93.9bp
VIX	16.50	-3.85%	+10.37%	국고채 10년	4.340	+7.3bp	+95.5bp
러셀2000	2,964.76	+0.39%	+19.46%	미국 국채 2년	4.193	-8.8bp	+72bp
필라. 반도체	12,661.93	+2.54%	+78.76%	미국 국채 10년	4.589	-3.4bp	+42.2bp
다우 운송	22,239.60	+0.13%	+28.13%	미국 국채 30년	5.104	-0.1bp	+26.1bp
상해종합	3,967.13	+1.36%	-0.04%	독일 국채 10년	3.113	+0.4bp	+25.8bp
항생 H	8,103.08	+0.46%	-9.09%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77,054.94	-0.72%	-9.58%	WTI	79.34	+1.54%	+39.1%
유럽, ETFs				브렌트유	84.73	+1.72%	+39.24%
Eurostoxx50	6,280.19	+0.15%	+8.44%	금	4,069.70	+1.6%	-8.35%
MSCI 전세계 지수	1,116.86	-0.86%	+10.08%	은	58.77	+1.97%	-16.76%
MSCI DM 지수	4,836.36	-0.65%	+9.16%	구리	633.00	+1.56%	+11.4%
MSCI EM 지수	1,649.46	-2.44%	+17.45%	BDI	2,960.00	+0.54%	+57.7%
MSCI 한국 ETF	176.98	+5.33%	+82.04%	옥수수	460.50	-0.59%	+0%
디지털화폐				밀	645.00	+1.53%	+18.19%
비트코인	64,528.78	+3.83%	-26.38%	대두	1,191.00	-0.31%	+11.88%
이더리움	1,874.66	+6.17%	-37.04%	커피	326.10	-1.18%	+1.8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